

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장,**추석 연휴 대비 출입국 현장 점검****- 인천공항 심사 현장과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상황 점검 및 직원 격려**

법무부 차용호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추석연휴를 앞둔 23일(수), 인천공항 출입국·외국인청,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연휴 기간 출입국·이민행정 현장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,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.

차 본부장은 먼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출입국심사 현장을 찾았습니다. 연휴 기간 중 일일 출입국자가 최대 24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만큼, ‘출입국심사 특별 근무대책’을 비롯해 자동출입국심사대 가동 상황과 혼잡 시간대 대응방안을 면밀히 살폈습니다.

이 자리에서 차 본부장은 “명절 연휴에도 심사현장을 지키는 출입국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”며 “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빈틈없는 출입국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”고 당부하였습니다.

이어 차 본부장은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보호외국인의 급식·의료 지원 등 보호외국인 처우 전반과 시설 관리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.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에도 외국인 보호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 체계를 점검하고,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.

차용호 본부장은 “보호시설 내 모든 업무는 보호외국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”라면서, “연휴 기간에도 보호외국인 처우와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”고 강조하였습니다.

담당 부서	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	책임자	과 장	유성오	(02-2110-4010)
		담당자	사무관	김은호	(02-2110-4014)